

자만은 곧 물

본문 신 29 : 14 - 29절

David HONG

1. 전체배경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축복과 저주가 당대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해석 & 적용

1) 세대를 이어 약속하신 언약

모압에서 맺은 언약은 그 이전 시내산 언약을 잇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닿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를 다 아우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유효한 언약이라는 소리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의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역사와 우주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면 누구든지 이 언약의 축복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가볍게 듣고,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스스로 평안과 안전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은 채 심판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2) 이스라엘의 재앙으로 깨어나는 열국

하나님께서 열국에게 당신만이 참 신임을 드러내는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그 척박한 땅에 사는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보며, 강대국 사이에서도 안전할 것을 보면, 열국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망함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큰 재앙으로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면, 열국도 하나님의 존재감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열국도 이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재앙을 내리시고, 크게 통탄하시어 뽑아 내시고 내던지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까? 첫번째 방법으로 드러내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자들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우상 하나를 만든 것에 불과하며, 그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원하는 것을 주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밀히 저절러진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드러난 일은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경외함, 영적인 긴장이 없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